

周時經의 意味理論*

——〈잠듣갈〉을 중심으로——

李 南 淳**

I

周時經에 있어서 ‘말듬’이란 곧 文章의 構造이며 ‘말듬’의 理解란 곧 文章의 뜻에 대한 理解였다.

말듬을 알기 쉽게 하라고 낫다를 가리어 그 들을 난호아 말하고 다시 그림으로 그 뜻을 보이노라(『國語文法』 1910, p. 39) (고덕체—필자)

한 文章이 나타내는 뜻은 ‘말듬’을 ‘그림’으로 그려 보임으로써 분명해진다.

〈잠듣갈〉은 周時經이 文章의 意味를 文章의 構造와 密接한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데 文章의 意味 파악을 위하여 ‘속 뜻’ ‘숨은 뜻’ ‘말’ ‘담’ ‘일’ 등을 使用하고 있다. 本稿는 이들이 文章의 意味解釋을 위하여 〈잠듣갈〉에서 어떻게 使用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周時經의 意味理論의 一端을 짐작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마련되었다.

II

周時經의 言語理論은 音學, 기(씨)난갈, 잠듣갈, 기(씨)뭍박굶 등에

* 本稿는 1982년 제 1 학기에 개설된 박사과정 교과목 “국어형태론 연습”(高永根교수 담당) 세미나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본고기 이루어지기 까지 도움을 주신 高永根교수께 감사할 드린다.

** 博士課程(國語學 專攻)

대한 그 동안의 論議들을 통하여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 중 本稿가 論議의 對象으로 삼고 있는 <잠들갈>에 대한 研究들은 한결같이 周時經이 生成文法理論에서의 變形과 基底構造와 같은 概念들을 認識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김민수 1977, p.141. 金錫得 1975, p.117. 南基心 1977, p.395. 李秉根 1979, p.41. 許 維 1971, p.55) 한편 周時經의 意味解釋方法에 대한 論議는 특히 高永根(1981)에서 다루어진 바가 있다.

<잠들갈>에 제시된 문장의 圖解(‘그림’)는 文章의 뜻을 밝히기 위하여 文章의 ‘말씀’ 즉 統辭的인 構造를 보이기 위한 것인 바 文章의 統辭的 構造가 文章의 意味를 결정하는 데에 重要的 역할을 담당하는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잠들갈>에서 文章分析의 基本單位는 ‘드’인데(李秉根 1979, p.39) 이 ‘드’는 文章의 構成成分 중 적어도 ‘남이’(叙述語)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文章의 基本成分(임이, 씌이, 남이)들을 모두 갖춘 ‘다 된 다’까지를 포함한다.”

文章의 基本單位인 ‘드’는 文章의 意味解釋에서도 基本的인 單位가 되고 있다. “먹는다”(버금본드二)와 같이 ‘남이’ 하나로서 한 ‘드’를 構成하는 경우에 ‘먹는다’는 ‘먹는이’(임이)와 ‘먹히는것’(씌이)을 ‘속뜻’으로 반드시 가지고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 이것은 文章構成의 基本單位인 ‘드’가 意味解釋에 있어서도 基本的인 單位가 됨을 보여 준다. 文章의 뜻을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 된 다’로서의 ‘드’이어야 한다. “저 소가 푸른 풀을 잘 먹소”(본드三)라는 文章의 ‘푸르-’는 ‘따로 즐기가 되어 남이 노릇할 것의 뜻’이 있음을 보이는 것이라고 하여 ‘풀이(임이) 푸르(남이)-’ 정도의 文章에서 叙述語(남이)로 쓰이는 ‘푸르-’가 ‘금이’가 되게 하는 ‘ㄴ’에 의해 修飾語의 機能을 하게 된다는

1) “드는 한낱의 씌인 말이 아모리 적어도 남이가 잇음을 이룸이니…”(「國語文法」1910, p.40)

“(알이) 이 말은 임 남 씌 세듬으로 다 된 다니라. 다 된 다는 아무리 크어도 이 세듬에 더함 이 없나니라”(상계서 p.41)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저 소가 푸른 풀을 잘 먹소”라는 文章은 ‘(저) 소(가)(임이) 풀(을)(씀이) (잘) 먹(소)(남이)’와 ‘풀(이)(임이) 푸르(오)(남이)’라는 두 ‘다 된 다’의 合成에 의하여 ‘한낱의 드’를 構成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文章의 意味解釋에서 基本的인 單位가 되는 것은 ‘다 된 다’로서의 ‘드’인 셈이다.

1) “이 소는 누르고 저 말은 겹다”(본드四)는 ‘이 소는 누르-’와 ‘저 말은 겹다’가 ‘-고’에 의해서 앞 文章(우에(웃)마티 혹은 몬저 마티)과 뒷 文章(알에 마티 혹은 곳마티)이 연결되어 두 ‘마티’로 된 ‘한낱의 드’를 構成한 것이다. 앞 文章과 뒷 文章은 文章의 構成成分 上으로 모두 갖추어진 ‘다 된 다’인데 형식적으로 앞 文章은 ‘남이’(누르-)에 ‘빛’이 없고 ‘-고’가 ‘아우름’으로 인해서 ‘다 못 일운 마티’이며 뒷 文章은 ‘남이’(겹-)에 ‘빛’(-다)가 있으므로 ‘다 된 마티’이다.²⁾ 뒷 文章의 ‘남이빛’(-다)은 앞 文章의 ‘남이빛’의 기능까지 아울러 가지게 되므로 이 두 ‘마티’를 ‘-고’로 잇고 하나의 ‘남이빛’으로 文章의 끝을 맺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결국 ‘-고’는 ‘다 된 다’로서의 ‘드’를 연결하는 機能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저 사람이 노래하면서 가오”(본드五)는 그 意味가 “저 사람이 노래하∞면서∞∞(저) (사람)(이) 가오”로 표시되었다. 즉 ‘우에 마티’의 ‘임이불이’가 ‘숨은 뜻’으로 ‘알에 마티’의 ‘임이불이’의 역할까지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 文章은 앞 文章의 主語部가 뒷 文章의 主語部 역할까지 하는 構造를 지닌 것인데 앞 文章은 構成成分에 있어 ‘다 된 다’이지만 뒷 文章은 構成成分에 있어 ‘다 된 다’가 되지 못한다. 반면 앞 文章은 ‘다 못 일운 마티’이며 뒷 文章은 ‘다 된 마티’이다. 여기서 ‘숨은 뜻’은 ‘다 못 일운 마티’로서의 ‘우에 마티’의 主語部가 ‘다 된 마티’로서의 ‘알에 마티’의 主語部 역할까지 遂行하는 경

2) ‘웃마티, 몬저마티, 알에 마티, 곳마티, 다 못 일운 마티, 다 된 마티’에 대한 설명은 「國語文法」 p. 44 참조.

우이다. 다시 말하면 형식적으로는 완전하지 못한 앞 文章의 主語部가 형식적으로 완전한 뒤 文章의 主語部 역할까지 겸하고 있는 것이며, 構成成分 上으로는 완전한 앞 文章의 主語部가 構成成分 上으로 불완전한 뒤 文章의 主語部 역할까지 수행한다. 따라서 ‘숨은 뜻’은 ‘다 된 다’로서의 ‘드’를 基本單位로 하여 형식적으로 文章의 表面에 나타나지 않는 同一要素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에 마되	:	알에 가되
다 못 일운 마되	:	다 된 마되
다 된 다	:	
드; 저 사람이 노래 흥면서	:	(저) (사람)(이) 가오
*		‘숨은 뜻’
同一構成要素의 ‘아우름’		

앞 文章의 ‘저 사람이’는 뒤 文章의 ‘(저) (사람)(이)’와 同一한 構成要素이고 앞 文章의 ‘저 사람이’가 뒤 文章의 ‘(저)(사람)(이)’를 어우르어 쓰고 있는데 이때 ‘(저) (사람)(이)’는 ‘숨은 뜻’으로서 ‘다 된 다’에서 表面的으로 나타나지 않는 (省略된) 同一要素를 뜻한다. 즉 ‘우에 마되’의 構成成分이 ‘알에 마되’의 構成成分을 어우르고 있는 것이다.

3) 한편 “저 붉은 봄 꽃이 곱게 피오”(본드八)에서 ‘봄 꽃’은 ‘속뜻’으로 ‘의’를 두어 ‘봄(의) 꽃’으로 해석되었는데 앞에서 살펴 본 ‘숨은 뜻’과는 달리 省略된 同一한 成分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속뜻 ‘의’는 ‘봄’과 ‘꽃’ 사이의 의미적인 관계를 밝혀 주는 것이지만 ‘다 된 다’로서의 ‘드’를 構成하는 데에는 必須的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 결국 周時經은 表面的인 同一 構成成分의 省略이라는 統辭의 節次와 構成成分들 사이의 意味的인 關係라는 兩面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4) “먹는다”(버금본드二)는 “스스 스스 먹는다”와 같이 圖解되었다. 즉 “먹는다”라는 文章은 ‘속뜻’으로 ‘먹는이’와 ‘먹히는 것’이 있다. 이때 ‘속뜻’으로 있는 ‘먹는이’와 ‘먹히는 것’은 統辭的인 節次에 의해서 同一要素가 省略된 것이 아니라 ‘남이’ 하나로서 文章을 이룬 ‘먹는

다"가 意味的으로 '먹는이'와 '먹히는것'과 관계를 맺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 된 다'가 아닌 '먹는다'는 主語部와 目的語部가 '속뜻'으로 있음으로 해서 '다 된 다'로서의 '드'를 構成하게 된다.

5) "내가 빠르게 가는 말을 타고 큰 재를 넘어 왔소"(버금본드八)에 서는 "내가 빠르게 가는 말을 타 $\infty\infty$ 고 $\infty\infty$ (내)(가) 큰 재를 넘 $\infty\infty$ 어 $\infty\infty$ (내)(가) 오 $\infty\infty$ 소"와 "(내)(가) 빠르게 가는 말을 타고 내가 큰 재를 넘어 오 $\infty\infty$ 소"의 두가지 의미로 圖解되었다. 前者의 그림에 대한 해석은 본드五의 둘째 그림³⁾ 즉 "저 사람이 노래하 $\infty\infty$ 면서 $\infty\infty$ (저)(사람)(이) 가오"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데, 본드五에서 '(저)(사람)(이)'가 '숨 은 뜻'으로 쓰여 '우에 마디'의 '저 사람이'가 '알에 마디'의 '(저)(사 람)(이)'의 노릇까지 함을 보여 주듯이 이때 '우에 마디'의 '내가'는 '알에 마디'의 '(내)(가)'의 노릇까지 함을 보여 준다. 반면에 後者의 그림에 대한 해석은 '타-'의 '임이(듬)'인 '(내)(가)'가 '속뜻'으로 있 는 것이며, '넘-'의 '임이(듬)'인 '내가'와 '가-'의 '임이(듬)'인 '말 이'가 '속뜻'으로 있으나 '속뜻'으로 있는 것은 그리지 않아도 상관없 다고 하였다. 이 두 그림에 대한 해석에서 전자는 '우에 마디'의 '내가' 가 '알에 마디'의 '(내)(가)'의 역할까지를 감당하는(어우르는) 것으로서 '(내)(가)'는 '숨은 뜻'으로 있는 것이며 반면에 후자는 '아우름'의 관 계로서 파악되지 않는 경우로서 '우에 마디'의 '(내)(가)'는 의미적으로 '다 된 다'로서의 '드'를 構成하게 하는 要素이다. 전자의 '숨은 뜻'과 후자의 '속뜻'은 '다 된 다'로서의 '드'를 構成하는 成分이라는 점에서

3) 「國語文法」의 버금본드八(pp. 58-59)에서 첫째 그림에 대한 설명은 "본드四의 첫째 그림에 전주어 붙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드四의 첫째 그림'은 '본드五(pp. 44-45)의 둘째 그림'의 잘못인 것 같다. 버금본드八의 '숨은 뜻' '(내가)'를 설명하려면 본드四가 아니라 본드五가 되어야 하며 또한 본 드四에는 그림이 하나밖에 없다. 한편 「朝鮮語文法」(1913, p. 14)에서 버금 보기八의 설명은 "본드四의 첫째 그림"이라고 되어 있고 반면에 보기드五(p. 48)에서는 「國語文法」의 본드五의 첫째 그림에 해당되는 것이 삭제되어 있다. 따라서 「朝鮮語文法」에서 보기드五의 첫째 그림은 「國語文法」 본드五의 둘째 그림에 해당하는 것이다.

는 共通的일 수 있지만 ‘숨은 뜻’은 省略된 同一要素 즉 형식적으로 表面에 나타나지 않는 同一한 構成成分을 말하는 것인 반면에 ‘속뜻’은 省略된 同一要素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意味的으로 추출되는 ‘다 된 다’로서의 ‘드’를 구성하게 하는 要素이다. ‘드’는 적어도 ‘남이’를 가진 것인데 후자의 해석에서 ‘가-’와 ‘타-’는 반드시 각각 ‘가는이’와 ‘타는이’가 ‘속뜻’으로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의 그림은 본드五에서와 같은 解釋方法이 적용되는 것인 반면 後者の 그림은 버금본드二에서의 해석방법이 적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6) “공기가 움직이면 바람이라고 하나니라”(버금본드十)는 “공기가 움직이 $\infty\infty$ 면 $\infty\infty$ 스스 스스스 스스 바람이라고 하나니라”의 의미로 分析이 되었다. 즉 “공기가 움직이 $\infty\infty$ 면 $\infty\infty$ 스스(사람이) 스스스(그 움직이는) 스스(공기를) 바람이라고 하나니라”로 해석되었는데 이때 ‘속뜻’으로 제시된 ‘(사람이) (그 움직이는)(공기를)’은 ‘다 된 다’로서의 ‘드’를 構成하는 必須的인 成分들은 아니지만 이 文章이 나타내는 意味를 더욱 완전하게 나타내어 주는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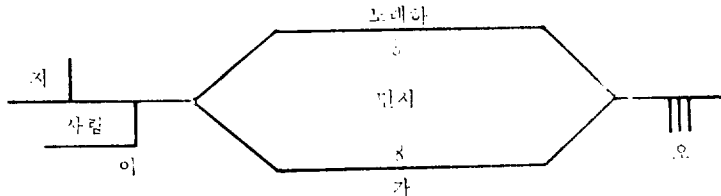
‘숨은 뜻’은 省略되어 형식적으로 表面에 나타나지 않는 同一한 構成要素들을 말하는 것이며 ‘속뜻’은 형식적으로는 表面에 나타나지 않으나 文章의 構成要素들의 意味的인 關係에 의해 추출될 수 있는 要素들이라고 할 수 있다. ‘숨은 뜻’은 반드시 ‘아우름’의 條件을 만족시키는 것이지만 ‘속뜻’은 ‘아우름’의 條件과는 關係가 없다.

III

버금본드十의 (잡이)(「國語文法」1910, p.64)는 周時經의 意味理論을 가장 集約的으로 보여 주고 있다. 周時經에게 있어서 ‘말’이란 뜻을 나타내는 소리로서 ‘낫말’이나 ‘잔말’을 다 포함하는 것이었다.(상계서 p.36) 즉 ‘말’이란 뜻을 실어 나르는 記號로서 인식되었다. 周時經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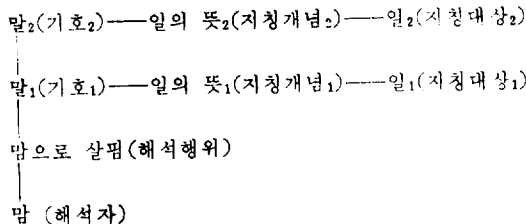
‘말’을 두었다. 周時經의 이와같은 인식은 마치 C.K. Ogden과 I.A. Richards(1923)의 意味 基本三角圖를 방불케 한다.⁴⁾

1) 본드四에서 본드八(『國語文法』 1910, pp. 43-49)까지에 제시된 (잡이)와 (알이)에는 ‘말’과 ‘일’사이의 관계가 명시되어 있다. “‘일’은 몬저와 나종의 차례가 없이 한 때에 여러가지가 있으되 그 ‘일’을 나타내는 ‘말’은 한 줄뿐이니 그 ‘일’의 몬저와 나종을 엇더하게 박구든지 그 ‘뜻’은 한가지라” 정도로 要約될 수 있는데 이는 ‘말’이 갖는 線條性(lineality)을 인식한 데에서 연유한다. (高永根 1981) ‘말’의 先後와 ‘일’의 先後는 一致하지 않으므로 ‘말’과 ‘일’사이에는 그 順序에 있어서 必然的인 관계가 存在할 수 없다. 이와같은 ‘말’과 ‘일’의 恣意的인 관계는 예컨대 “저 사람이 노래하면서 가요”(본드五)와 같은 文章이 “저 사람이 가면서 노래하오”라고 하여도 그 ‘일의 뜻’은 같다고 함으로써 파악되었다. 이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서 보이면 ‘뜻남이드’ 즉 두 ‘남



(『國語文法』 p. 45, 본드五 세째그림)

4) 高永根(1981)에서는 Morris의 기호이론의 체계에 힘입어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파악되었다. (Morris의 기호론의 체계에 대한 해설은 김한곤(1969) 참조.)



이'(叙述語) '노래하-'와 '가-'가 한 명의 '남이'를 構成하는 文章임을 보여준다. 결국 이와같은 도해의 방법은 '말'과 '일의 뜻'사이의 恣意的인 관계를 定義하는 방법으로서 채택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2) "공기가 움직이면 바람이라고 하나니라"(버금본드十)의 뜻은 결과적으로 "공기가 움직이면 사람이 그 움직이는 공기를 바람이라고 하나니라"하는 것이므로 "이 그림은 이러한 말"로"그린다고 하였다. (『國語文法』 1910, p. 64) 이때 '말'이란 '말'과 同價의 것이 아니다. '말'이란 뜻을 풀이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말'이란 文章의 表面에 형식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속뜻'(사람이 그 움직이는 공기를)을 밝혀 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이와같이 '그림'과 '말'은 '말'과 '일의 뜻'사이의 관계를 밝혀주는 것인 바 記號(말¹)과 指示概念(일의 뜻)사이의 恣意的인 관계를 定義하는 方法으로서 제시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3) '그림'이나 '말'로써 '속뜻'까지 밝혀서 '일의 뜻'을 나타낼 때에도 "공기가 움직이면"이라는 마디를 "바람이라고 하"의 '금이'(修飾語)로 그리기도 하고 (버금본드十의 둘째 그림) '남이' "하"의 '금이'로 그리기도 하고(버금본드十의 첫째 그림) '우에 마디'와 '알에 마디'를 분리시켜서 그리기도 하는데(버금본드十의 셋째 그림) 이렇게 여러가지로 그려서 그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담'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담'은 '그림'이나 '말'로서는 분명하게 나타낼 수 없는 '말'과 '일의 뜻'사이의 관계를 밝혀 주는 역할을 한다. '담'은 直觀이나 文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IV

지금까지 논의해 온 것을 要約함으로써 結論으로 삼는다.

1) 文章의 意味는 '말'을 보임으로써 분명해지는데 <잠들갈>에서

文章의 意味는 文章의 構造와 密接한 關係 속에서 파악되고 있다.

2) 文章의 意味 해석에 있어서 基本的인 單位는 ‘다 된 다’로서의 ‘드’인 바 ‘숨은 뜻’은 ‘다 된 다’로서의 ‘드’를 基本單位로 하여 형식적으로 文章의 表面에 나타나지 않은 同一 構成要素들이며 ‘속뜻’은 文章의 表面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文章의 構成要素들의 意味의 關係에 의해 추출될 수 있는 要素들이라고 할 수 있다. ‘숨은 뜻’은 ‘아우름’의 條件을 만족시킨다.

3) ‘그림’ ‘말’ ‘맘’은 ‘말’과 ‘일의 뜻’사이의 恣意的인 關係를 定義하는 方法들로서 채택되었다. 한편 ‘말’과 ‘일’과 ‘뜻’사이의 關係는 C.K. Ogden과 I.A. Richards의 意味 基本三角圖를 방불케 한다.

참 고 문 헌

- 高永根(1978), “國語文法研究一世紀(中)”, 「韓國學報」 13.
 _____(1981), “주시경의 문법이론에 대한 형태·통사적 접근”, (제 8 회 국어학회 공동연구회 주제 논문 요지)
 金敏洙(1977), 「周時經研究」, 塔出版社.
 金錫得(1975), 「韓國語研究史」(下), 延世大出版部.
 金韓坤(1969), “意味論의 對象과 方法”, 「語學研究」 5-2.
 南基心(1977), “國語學이 걸어온 길”, 「言語科學이란 무엇인가」(李廷玟·李秉根·李明賢 編, 文學과 知性社).
 李基文(1976a), 「周時經全集」(下), 亞細亞文化社.
 _____(1967b), “周時經의 學問에 대한 새로운 理解”, 「韓國學報」 5.
 李秉根(1979), “周時經의 言語理論과 訛씨”, 國語學 8.
 허 옹(1971), “주시경 선생의 학문”, 「東方學志」 12.
 Ogden, C.K. & I.A. Richards(1923), *The meaning of Meaning*. New York: Harcourt, Brace and World.